

原城郡 法泉里

石槨墓와 出土遺物

金 元 龍

一

七三年 九月一四日 文化財管理局의 埋藏文化財評價委員會에 나갔다가 原城郡 法泉里 古墳에서 部落民이 發見提出하였다는 一括遺物들을 보았다. 이 遺物들은 三國時土代器類와 鐵製馬具·武器들, 그리고 한 개의 中國 六朝時代初期靑磁羊形器 및 甬斗 一개였는데 土器類는 粗質繩蓆文土器와 黑灰色無文新羅土器의 두 種類로 갈라지며 아무래도 두 개의 遺物群即 두 개의 古墳에서 나온 것이 뒤섞인 것 같았다. 그리하여 鐵器들은 新羅土器들과 結合될 것이 推測되었고 繩蓆文土器 두 개와 甬斗는 一群으로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陰刻斜格文帶를 肩部에 돌린 平底短頸埴 한 개와 問題의 靑磁는 어느 쪽에 屬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平底埴은 胎土의 質이 弱하고 色質感 등이 繩蓆文土器와 通하는 데다가 過去 서울 可樂里의 百濟初期古墳에서 나온 黑色磨研土器①와 그 形態나 文樣에 있어서 꼭 같기 때문에 그 時代가 三世紀 乃至 四世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어서 繩蓆文土器群에 屬해야 할 것이라고 推測되었다.

한편 靑磁羊形器는 그것이 六朝時代의 初期靑磁인 것만은 分明했으나 正確하게 몇世紀에 該當하는 것인지는 會議當日에는 알 수 없었고 研究室에 돌아와서 文獻을 찾아보다가 거의 同形의 것이 南京附近의 東吳甘露元年(二五六年) 古墳에서 나왔고 그것이 中國에서는 둘째번로 오렌 靑磁例임을 알게 되었다. ② 元來 우리 나라 三國古墳에서는 中國陶磁器의 發見이 武寧王陵을 除外하고는 絶無한 데다가 이 靑磁羊 自體가 그렇게 重要한 存在이고 보니 이것은 物件 自體의 價値 以外에 우리 三國 初期古墳이나 遺物의 編年基準이 될 것이 틀림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出土古墳과 出土狀況 등을 하루 速히 把握 記錄하여 두기 위해 二日 後인 九月一六日 現地로 찾아가서 出土地點을 確認하고 發見者로부터 出土狀況을 들었다. 不幸하게도 古墳 自體는 痕跡도 없이 되어 버렸으나 出土狀況과 遺物들은 資料로서 公開하고 아울러 이 出土遺物들이 가지는 考古學的 意義에 관해서 管見을 發表해 두고자 한 것이 이 小稿의 目的이다.

二

遺蹟의 正確한 位置는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이며 高速버스로 原州로 가서 西南쪽 方向으로 舊道를 따라 약 三〇km 가면은 南漢江東岸의 法泉里로 나온다. 南漢江은 이 地點에서 거의 北向으로 흘러 가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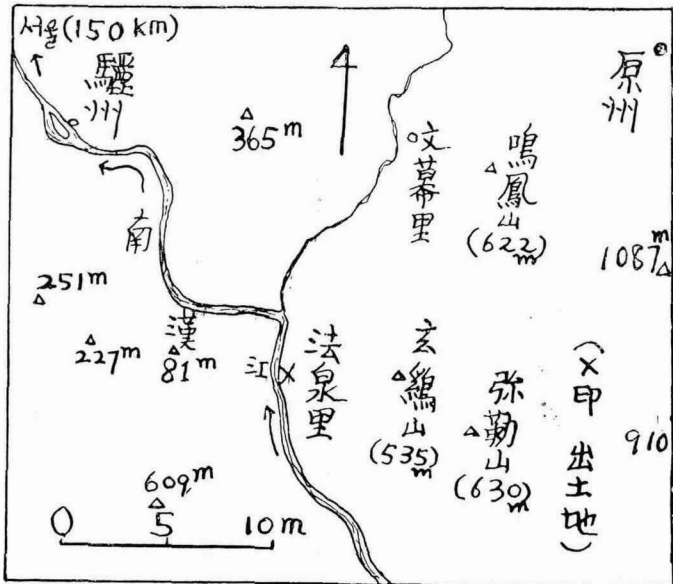


圖 1. 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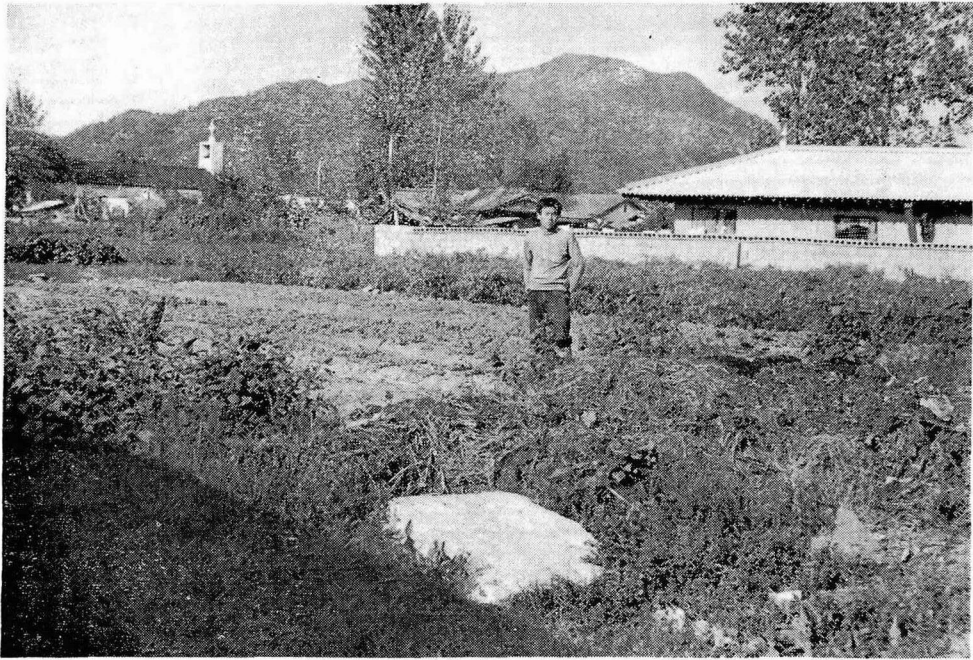


圖 2. 法泉里 古墳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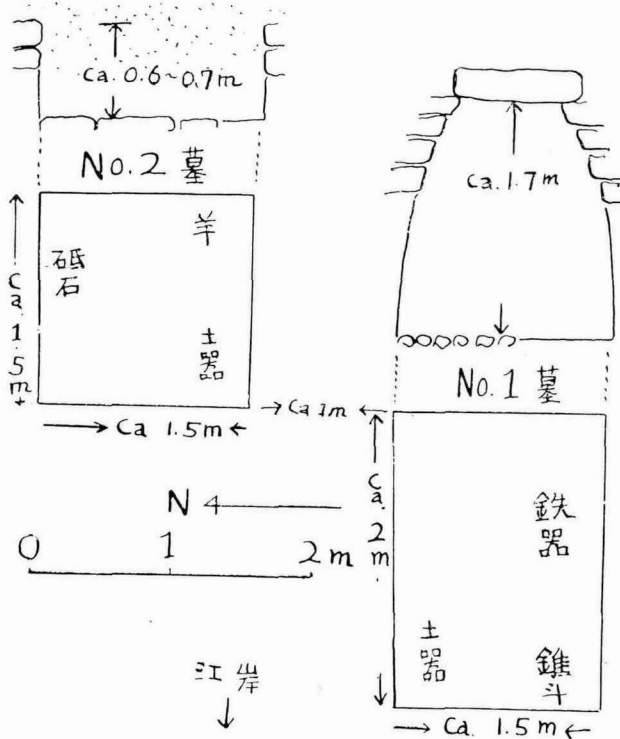


圖 3. 古墳 復原 略圖

西北쪽으로 꺾이며 驪州를 向해 흐르며, 되는데 法泉里와 驪州와의 直線 距離는 약 二〇 km 이다. 南漢江 東岸쪽은 太白山脈의 西麓으로서 圖(1) 에서 보다시피 海拔五百 m 以上の 山들이 點綴하고 있으며 法泉里는 이 太白山脈西쪽 傾斜面이 漢江岸에 와서 形成되는 砂成河段丘 위에 있으며 洞里 自體가 바로 江에 면하고 있다. 問題의 遺物 出土地點은 이 洞里的 江에 면한 끝이며 이 地帶에는 砂地의 발로 되어 있고 밭이 끝 나면 江面으로 약 六—七 m 떨어진 河段丘 傾斜面이 된다.

法泉里對岸 즉 南漢江西岸은 驪州平野로서 山의 높이도 二百臺로 急히 떨어지고 利川、廣州를 거치는 서울地方에로의 交通路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漢江下流와의 交通은 漢江 自體를 利用하며 法泉里는 忠州—鳥嶺으로 通하는 韓國中部의 歷史的 古代南北通路 위에 位置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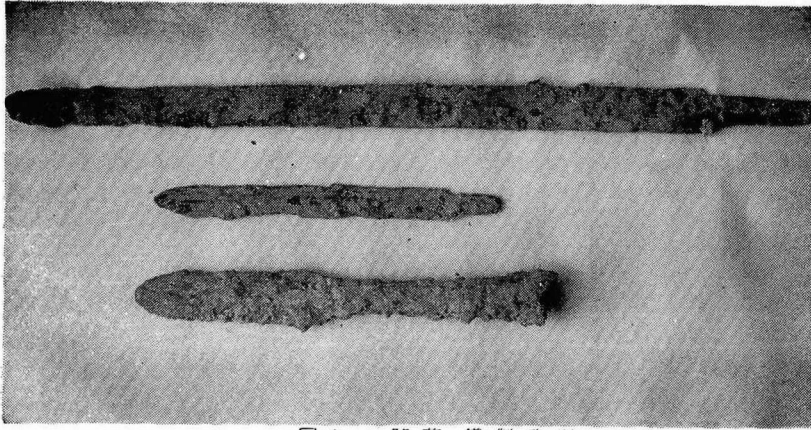


圖 4. 一號墓 鐵製武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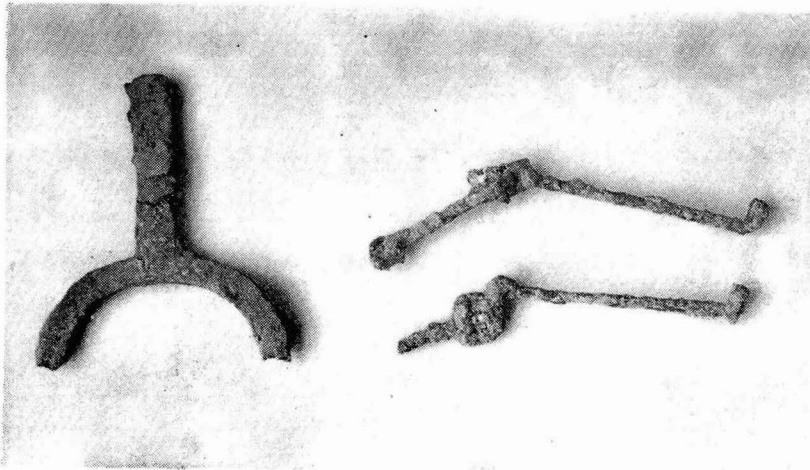


圖 5. 一號墓 鐵製馬具



圖 6. 一號墓 鐵製·金銅製品

또實地로 이 法泉里周邊에는 平地가 꽤 넓게 펼쳐지고 있으며 여기서 약 2km 東쪽의 丘陵地帶初入에 있는 高麗時代의 有名한 法泉寺址도 이 法泉里를 據點으로 하는 歷史的 共同體를 背景으로 하고 있을 것이며, 이번 에 發見된 古墳은 그 高麗時代共同體의 歷史가 三國時代나 또는 그 以前까지로 올라간다는 事實을 말해 주고 있는 듯하다.

이번 遺物이 나온 밭은 그 밭 바로 앞에 살고 있는 홍병주라는 青年의 소유로 그가 四月二五日 그 砂地를 밭으로 갈다가 두 개의 石室을 發見

하고 그 속에서 文化財管理局에 提出한 바와 같은 遺物들을 採集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밭에 依하면 그 前에도 附近 모래밭에서 이번 본 것과 같은 石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며 그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江에 面한 砂段丘一帶에는 古墳群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圖(2)는 發見者가 發見位置에서 있는 것이며 前景의 石板石은 다음에 說明할 두 개의 古墳中 第一號墳의 天井石의 一部이다.

이 略報는 青磁羊形器를 낸 第二號墳을 主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圖 7. 一號墓 銅 鑊 斗



圖 8. 一號墓 土 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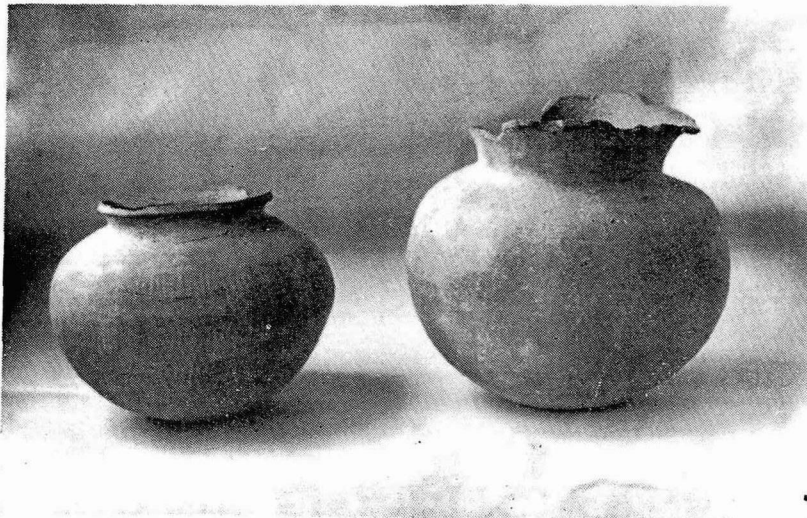


圖 9. 一號墓 土 器

第一號墳에 對해서는 詳報를 略하지만 第二號墳과의 比較上 그 대강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至今이 古墳이 完全히 없 어 지 고 石 材 一 切 가 工 事 에 使 用 되 었 기 때 문 에 詳 細 한 것 은 알 수 없 으 나 發 見 者 의 말 을 綜 合 하 면 二 邊 이 대 약 二 × 一 . 五 m 의 東 西 로 긴 小 形 豎 穴 式 石 室 이 며 長 壁 은 上 部 에 서 內 傾 하 였 고 天 井 은 板 石 몇 개 를 二 列 로 덮 은 것 으 로 石 室 의 깊 이 라 할 까 높 이 는 약 一 . 七 m 이 다 (圖 3).

바닥에는 자갈돌이 깔렸고 石室 東 南 部 에 서 鐵 刀 · 鐵 鉢 · 鏡 子 등 鐵 器 類 (圖 4, 5, 6) 가, 西 南 部 에 서 靑 銅 鑊 斗 (圖 7), 西 北 部 에 서 黑 灰 式 圓 底 卮 四 枚 (圖 8, 9) 가 나 왔다. 이 런 點 으 로 미 루 어 被 葬 者 는 東 枕 으 로 納 棺 (棺 鐵 具 有) 仲 葬 되 었 던 모 양 이 다. 이 第 一 號 墳 은 石 室 自 體 나 遺 物 相 이 다 음 第 二 號 墳 과 는 全 體 的 인 差 異 를 보 이 고 있 으 며 그 年 代 는 三 國 期, 西 紀 五, 六 世 紀 頃 이 라 고 推 測 된 다. 第 二 號 墳 은 이 第 一 號 墳 의 東 北 隅 에 서 北 쪽 으 로 약 一 m 떨 어 지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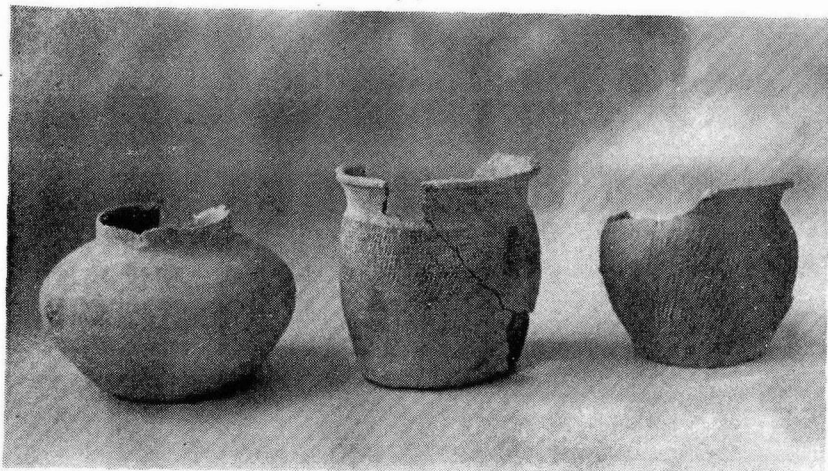


圖 10. 二號墓出土土器類

西南隅가 位置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약 一·五 m 平方의 거의 方形이었고 天井石이 모래가 차 있었다고 하며 石壁의 높이는 六〇—七〇 cm 정도였다. 元來는 아마 木板으로 덮혔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닥에는 一號墳과는 달리 넓적 넓적한 돌이 깔려 있었고 東南隅에 青磁羊이, 西南隅에 土器 三點, 北壁 東쪽 가까이 솥을 一개가 있었다.

이 二號墳도 至今은 痕跡도 없이 없어져서 發見者가 말하는 石室의 構造를 點檢할 길이 없으나 石室이 一·五 m 方形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異常하며 이것은 一號보다 幅도 길어도 작은 東西長軸의 堅穴石槨이 있다고 생각되며 幅 一 m 內外, 길이 人長(一·七—一·八 m) 정도의 小形槨으로서 金海郡 大東面 禮安里 또는 蔚山郡 溫陽面 三光里에서 보는 따위의 金海期石槨墓와 같은 것이라 고 믿어진다.

三

二號墳에서의 出土物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繩蓆文灰陶廣口平底壺(圖 10)의 向右 및 (11) 高一·二 cm 口徑 一一·八 cm 器壁 〇·四—〇·五 cm

口部에서 肩部에 걸쳐 破損된 部分이 있으나 復原可能하다. 胎土에는 작은 石粒이 섞였고 吸水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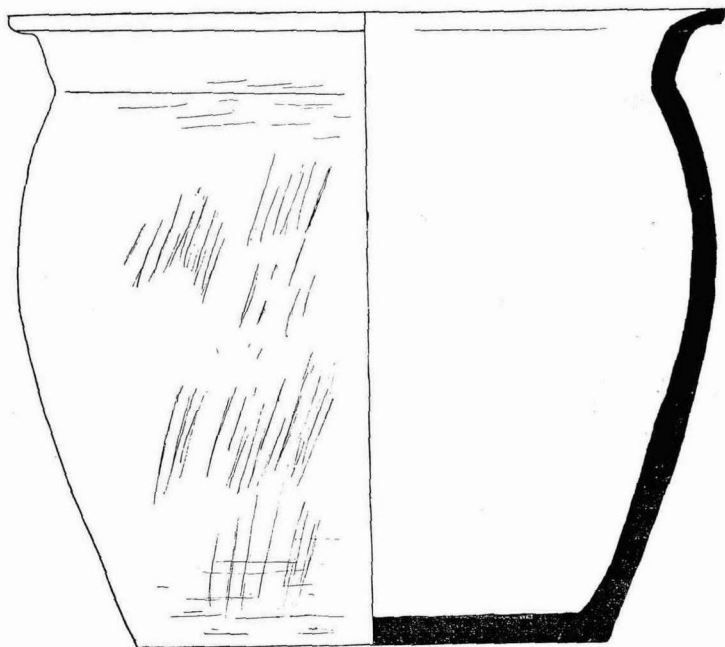


圖 11. 繩文廣口平底壺(二號墓)

높은 粗質로서 色은 灰白色이다. 器形은 어깨가 若干 分은 廣口에 목이 가볍게 外傾하며 올라가다가 口緣이 거의 水平으로 外反하는 것이며 成形에는 轆轤를 쓰지 않았다. 그릇 內外面에는 뚜렷하지 않게 繩文이 斜向으로 秩序 없이 나타나 있고 그 위를 다시 가볍게 문지른 흔적이 있다. 그리고 器內壁에는 무엇으로 긁은 縱線이 몇 줄 생겨 있다.

(2) 繩蓆文廣口平底壺(圖 10)의 中央, 圖 12)

高一·二·七 cm 口徑 一一·八 cm, 器壁 〇·四—〇·七 cm

亦是 完形은 아니나 全形을 復原할 수 있다. 胎土에는 砂粉이 섞이고 粗質, 色은 靑白 또는 褐色調이나 壁心은 黑色이고 靑돌가루가 點點이 섞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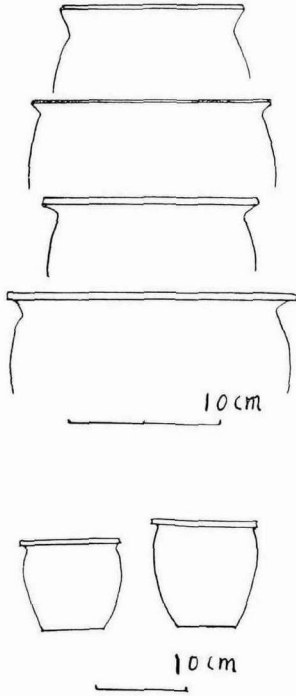


圖 13. 金海貝塚廣口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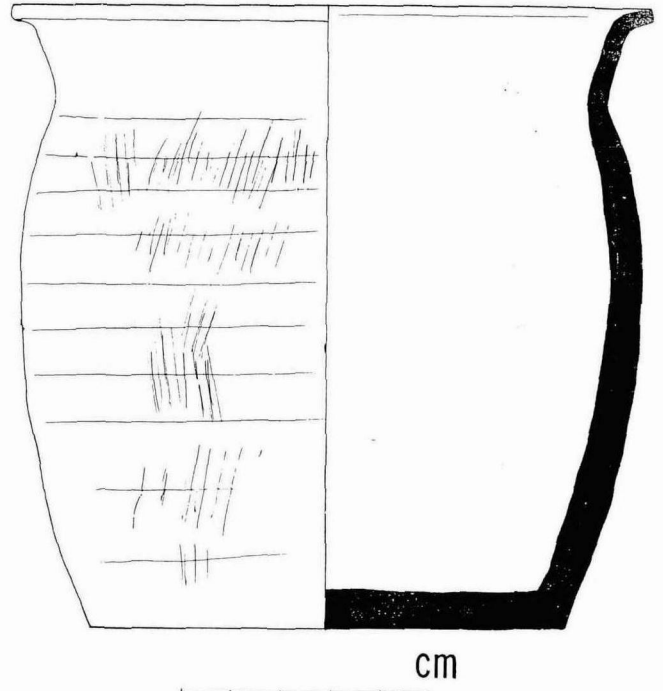


圖 12. 繩蓆文廣口平底壺(二號墓)

器形은 前器와 基本的으로 같은 平底廣口이지만 배불음이 적고 頸部가 길어져서 形態가 좋아지고 있다. 成形에 있어서는 口緣部 마무리할 때에 簡單한 廻轉板은 썼는지 모르나 轆轤使用의 積極的 證據는 없고 器內 部壁面에는 粘土帶를 쌓아 올린 자국들이 잘 남아 있다.

한편 器表에는 比較的 高운 繩文이 세로 打捺되었고 그 위를 平行模條가 돌고 있어 金海土器 特有的 繩蓆文을 形成하고 있다.

이러한 平底廣口器는 金海貝塚에서도 나오고 있으며(圖 13) 金海期의 特色 있는 器形으로 되어 있으나 質에서나 形態, 文樣 등에서 近似 또는 酷似한 것은 서울 風納洞 土城內 包含層의 粗質有文土器④이다(圖 14).

(3) 無文土器 破片

조그만 無文土器 破片이 二片 있는데 그 發見位置를 分明히 할 수 없다. 胎大는 砂粒이 섞인 砂質土이고 褐色, 器底는 아닌데 두께는 각각 〇·七 cm, 一·〇 cm 두꺼운 편이다.

風納洞에서도 이와 비슷한 無文土器들이 나오고 있으며 形態는 역시 有文器 비슷한 平底廣口이고 風納里無文이라는 名稱을 붙인 바 있다. ⑤

(4) 刻文平底壺(圖 15) 高一〇·五 cm, 腹徑 一五 cm 灰白色의 高운 胎土이며 硬陶는 아니나 위에 본 土器들보다는 단단하게 구워졌고 表面도 매끄러우며 別系統의 土器形式임을 말해주고 있다. 器形은 直立短頸, 어깨에서 腹部에 걸쳐 急히 불어나온 平底壺이며 肩部에 斜交集線으로 채워진 幅 一·七 cm의 平行線文帶가 돌고 있다. 이 土器는 色은 다르나 그 胎土, 器形, 文樣帶 등 서울 可樂洞 百濟墓出土의 黑色磨研土器①(圖 16)와 똑같으며 同一形式의 土器임이 分明하다. 이 可樂古墳은 風納洞 土城과 關連을 가지는 百濟極初期古墳으로서 그 年代는 西紀 三、四世紀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圖 14. 風納里粗質有文陶(口緣 및 底部)

그런데 이 短頸平底壺와 같은 形壺의 土器는 樂浪古蹟에서 흔히 보는 바이며(圖 17) 可樂洞 것이나 이번 土器는 거기에서 배운 것이라고 믿어지고 따라서 南韓灰陶에서는 가장 初期形態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平行刻線文帶도 樂浪銅器나 漆器중에 보이는 刻畫文에서出發한 듯하고 可樂洞土器의 黑色磨研法은 高句麗土器에서 보이는 같은 技法을 배운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 原州의 土器가 可樂洞土器보다 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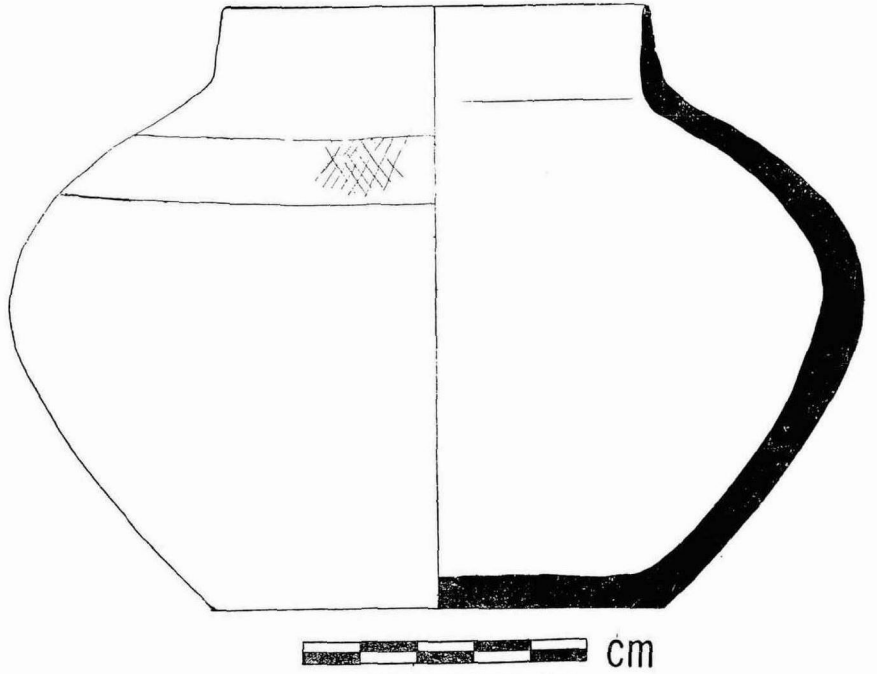


圖 15. 刻線文短頸平底壺(二號墓)

期的으로 先行일 것이며 이러한 樂浪式刻線文土器에 樂浪滅亡後 高句麗 土器의 手法을 加味하여 可樂洞土器로 變化한 것이라 하겠고 風納洞出土의 刻線文黑色磨研土器破片 所謂 風納里黑陶^⑥도 可樂洞土器와 같은 時期의 것이 分明하다.

이렇게 해서 이 原州土器樣式의 出現年代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을 것이다.

(5) 숫돌(圖 18) 全長 一一·五 cm

明褐色의 砂岩製이며 四面이 모두 使用磨耗되어 鞍狀을 이루고 있다. 一側에는 몇 줄기 金屬器로 패어진 듯한 削溝가 나타나 있다.

숫돌의 크기로 보아 過히 크지 않은 鐵刀子 따위의 磨研用으로 쓰인 듯 한데 이 숫돌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被葬者에 있어서 生存 時의 重要な 工具였다는 뜻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紡錘車의 存在가 女性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때 숫돌의 副葬은 被葬者가 男子였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여기 重要な 工具로서 숫돌이 採擇된 것은 그 當時에 있어서의 鐵刀器生産과 關係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金海期에 있어서의 鐵製品의 發展과 家內工業品으로서의 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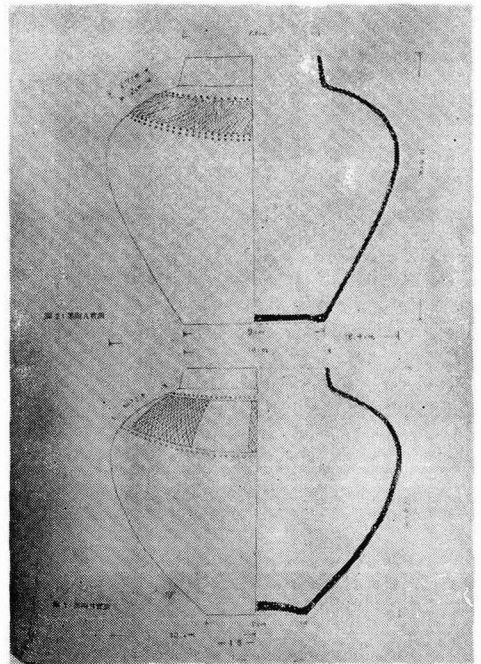


圖 16. 百濟黑色磨研土器
(可樂洞古墳出土)



圖 17. 短頸陶壺(大同郡梧里樂浪古墳出土)

要性を反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 青磁羊形器(圖

19) 高一二·五cm、長一三·七cm、

四肢를 안으로 꺾고

압드린 羊으로서 英語

로 Sheep라고 하고 것

이 該當된다.

全形이 거의 完全하

나 귀와 뿔의 基部가

一部 破損되어 있다.

입을 다물고 큰 눈에

코등에는 三橫枝의 縱

線한 줄이 있고, 등에

도 두 줄, 그리고 허리

部分에 날개같은 點線

文이 있는데 이것은 다

음의 中國出土品을 通

해 날개를 表示한 것이 틀림 없다. 큼직한 영덩이에는 環耳形 꼬리가 붙어 있고 全身에는 얇고 龜裂이 많은 灰綠色釉가 덮혀 있다. 한편 머리 頂部에는 一·五×一·〇cm의 橢圓形 구멍이 뚫려 內部로 통하고 있으며, 內部가 확실치는 않으나 무개로 보아 中空으로 되어 있는 듯하다.

이 青磁羊이 그 形態나 釉藥으로 中國六朝時代의 初期 青磁임은 一見 明瞭한데 이와 똑같은 것이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南京附近의 東吳甘露 元年(西紀二五六年)墓에서 發見되어 있다(圖 20).

이 東吳 青磁羊은 크기를 전혀 알 수 없으나 完全하며 全體의 모습 그 리고 頭部에 뚫린 구멍 등 우리 原州 것과 酷似하며, 벌린 입, 작은 눈, 목과 등에 있는 平行刻線 등, 그리고 우리 것 보다 잘 表現된 날개, 四肢 등 細部의 差異가 있기는 하나 눈알, 입, 體軀 등에 있어서 우리 것이 더

힘에 날치고 있으며 배리 루부르博物館에 있는 漢代 羊形銅燈이나 中國 劉勝墓(漢代)의 出土의 同形의 羊形銅燈과 近似를 보여 주어 도리어 우 리 것이 東吳墓 것보다 古拙하고 時代에 있어서 若干 앞서고 있는 것 같고 三世紀의 作品임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다.

이들 漢代 羊形銅燈은 青磁羊形器와 外形은 꼭 같으나 머리에 구멍이



圖 18. 솥 돌(二號墓)



圖 19. 青磁羊形明器(二號墓)

뿔리지 않고 身部의 上半部가 두껍처럼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青磁羊은 燈器는 아니고 明器로 製作되었을 것이며 머리의 구멍이 特殊한 儀器的인 性格을 表示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法泉里 古墳發見의 青磁羊은 中國에서 樂浪이나 帶方郡으로 들어왔고 거기서 다시 南韓으로 運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三國志 吳志에 依하면 嘉禾二年(二三三年)에 遼東의 公孫淵에게 보낸 使節團關係로 吳가 高句麗와 直接接觸하고 吳의 工藝品을 傳達한 일이 있으며 이

러한 交涉으로 高句麗에 青磁羊 같은 것이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나라 山岳地帶를 통한 交通을 通해 直接 原州地方으로 運搬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無視할 수는 없다.

四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이假稱 原州第二號 古墳과 그 出土遺物은 그墓 自體의 構造로나 土器, 特히 中國製 青磁를 通해 年代가 西紀三世紀頃으로 잡혀지는 것이며 金海時代나

이른바 原三國時代의 墓制는 勿論이거니와 文化全般을 理解하는데 큰 資料라고 하겠고 우리는 漢江 上流에 살던 어느 原三國時代人의 生活相, 그들의 活動範圍같은 것을 이 舶來의 青磁羊을 通해 몸으로 느끼는 듯하다. (七三、一〇、三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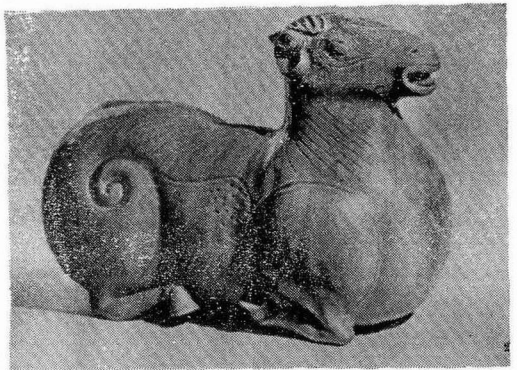


圖 20. 青磁羊形明器 (南京附近東吳甘露元年(256A. D)墓出土)

註

- ① 金貞培: 「可樂洞 土擴墓出土의 黑陶와 甕棺」 考古美術 一〇八(一九七〇、一一) pp. 13-17
- ②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新中國의 考古收獲」(一九六二年) 圖版 九六의 2 및 p. 93. 現存最古의 青磁例는 亦是 東吳의 黃武六年(西紀二二七年) 墓出土品이라 한다.
- ③ 拙著: 「韓國考古學概說」(서울一九七三) p. 114 本文 및 註(10)
- ④ 拙著: 「風納里包含層調查報告」(서울 1967) pp. 21-23
- ⑤ 全書 pp. 20-21
- ⑥ 前掲拙著 pp. 28-29
- ⑦ 平凡社 世界美術全集 中國 I(東京 1956) 圖版 19 및 「新中國出土文物」(1972) 圖版 101